

“日수출규제 잘 극복... 소부장 강국 도약”

〈소재·부품·장비〉

문 대통령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한국의 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들과 대화에 참석해 사회자의 '소부장' 즉흥 심형시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1년을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길을 걸었던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정책 전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앞장서며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서 그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고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새롭게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됐다”면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소·부·장 2.0 전략’에 담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소부장 2.0 전략에 대해 크게 3가지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며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업에 ‘첨단 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며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통과 주력”

정의당 전복도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관련



정의당 전복도당은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9일 전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토록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번번히 폐기와 철회를 반복, 제정이 좌절 되었다며 당력을 집중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함께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도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각종 오프라인 과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의정 혁신” ... 완주군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주목’

김재천 의장 “권위·관행적인 기준 틀 과감히 내려놓을 것”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출범한 제8대 완주군 하반기 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8대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사진)은 “변화와 혁신, 주민과의 소통 공감 의정을 통해 가장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권위와 관행적인 기준 틀은 과감히 내려놓고, 의회는 물론 지역 내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주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이끌어 내고,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똑똑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 생활형 민원사항 사전 업무숙지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 하고, 군민 밀착 의정을 통해 군민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더 나아가 대안제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8대 전반기에 추진된 의회활동들이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도 강조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8대 하반기 의

회는 출범 후, 가장 먼저 코로나19 방역 현장근무자와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 및 격려 하므로써 현장에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역 속에서 민생의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김재천 의장은 지역을 가장 잘하는 청년일꾼으로써 군민들에게 선택과 쓰임을 받은 만큼, 군민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의회 출퇴근시에는 의장 전용차량 대신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완주군의회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8대 하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 될 것”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나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면서 오는 8월 전 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이어갈 배에 태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

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굳게 약속드린다.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국가’를 앞당기겠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즉각 추진 및 기본소득 장기적 추진 ▲검찰개혁 완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교착 돌파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심화의 광역 상생발전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의 포부를 밝혔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